대학원생 세미나 13. 10. 14

리딩: Suzuki, Shogo. Civilization and Empire : China and Japan's Encounter with European International Society. London ; New York: Routledge, 2009(발제: 최인호)

이재현: 이론파트를 중점적으로 보았었는데 학자 본인이 일본인이라 일본 agency에 대해서 강조하는 부분이 흥미로웠음. 기존 영국학파의 이론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부분은 재미있었지만 국제사회의 원형을 더 보여주었으면 좋았을 것. 각각의 agency가 어떻게 편입되었는지만 본 것 같음. 국제질서가 이미 존재하던 질서의 적절성의 논리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보려면. 중, 일, 한을 다 봐야 하는데. 한국은 agency는 없고 victim처럼 서술이 된 측면이 있어서. 동아시아인, 한국인이 보기엔 이론적 틀에 있어서 포괄적이어서 그런 것인가. 첫 번째 토론질문이 재밌을 것 같음. 중, 일만 보면 안되겠다는 생각.

최인호: 일본 조공체제론이 있지만 한국과 일본의 인식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해야 함. 우리는 나름의 질서가 있었으며, 세 개의 동아시아, 세 개의 국제 script가 있다. 그에 따라서 actor들이 performance를 한 것. 그 중의 하나가 일본 actor임. 우리가 보는 것과는 다름.

조선은 일본 인정 안하고. 서로 경쟁적으로 너희들이 우리 아래다 라는 이야기. 스즈키도 다 틀은 있지만 안에서 이야기.

김은지: 동아시아, 19세기를 제대로 분석한 것일까. 당시 조선. 일본이 제국으로 가는 관점. 제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국제사회로 가는 과정이 있음. 다음의 행보가 있을 때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거기서 대동아공영권의 것과 조선의 침략을 뺌. 그래서 멈추는 게 맞아서 조선을 뺀 것이 아닐까? 내가 한국사람이라서 일본 학자가 중일관계. 일본이 내재적으로 어떻게? 그 당시에 조선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비판한 것, 사실 내가 극복해야 하는 문제가 아닐까? 일본 연구자니까...

용채영: 청일전쟁 파트 이외에 안 들어감. 주제는 일본이 서구적 Janus를 봐서 제국주의로 갔다라는 것인데, 왜 이후 부분은 서술 하지 않았는지.

최인호: 구성주의에서 관념이 전쟁까지 갔다라는 것을 설득력있게 보여주고자 한 것. 전쟁이라는 것이 없는 국제사회 속에서 갑자기 제국주의로 와서 전쟁이라는 관념이 만들어와서? 일본 정당화가 되나?

마지막에 21세기 이야기. 19세기나 20세기나 21세기도 비슷한 것이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 중국과 미국 토론할 때도 계속 붙는 것. 중국은 일정부분 받고 논의. 얼마나 설득력이 있나? 역사사례를 빗대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과학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 영국, 미국학자들은 이 시기를 공부하는 듯. 탈식민주의도 있지만 탈식민주의도 너무 단순화된 것이 아니냐. 제국주의로 일방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중국, 일본의 법적, 정치적인 제도랑 맞물리면서 만들어진 것이지. 무조건 제국주의로 몰아간 것은 아니지 않나?

옥창준: 스즈키 이야기처럼 이 때의 인권 논의. Civilizing의 재판이냐? 현재 스즈키도 civilizing mode가 있고, 동아시아의 mode도 있지만 동아시아에는 제국주의로 갔다는 이야기인데. 이건 얼마나 설득력있나? 일종의 legal pluralism이 있었던 것이다. 그 중에 힘의 국제사회적인 있었다는 것은 있지만 다 제국주의로 볼 수는 없는데.

전재성: 중국, 일본이 국제사회학파 논의를 받아들여서 하고 있는데. 세분화해서 쓴 것은 없음.

도종윤: 유럽의 international society의 개념을 중국, 일본이 그 때 받아들일 수 있었는가? 충격적인 주장처럼 들리진 않음. 일본은 자신이 일본인이어서 잘 참고. 중국은 1차 문헌 별로 없고 필요한 것만 보고 정해진 틀로 짰다는 생각. 제목이 중국과 일본이 유럽의 국제사회랑 만난 것이므로 한국이 간과된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중국과 일본이 다른 길로 가게 된 것이 말은 European international society. 영국 문서들만 주로 봄. 왜 중국과 일본이 다른 길로 가게 된 것이 여기의 설명은 내재적인 설명임. 중국이 가진 전통, 세계관과 일본이 가졌던 것이 내재적으로 좀 달랐다라는 것으로 서술. 그럼 특수한 현상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인지? 양쪽이 다르게 간 길. 중국은 중국대로, 일본은 일본 대로. 아시아 전체의 일반화를 이야기하고자 한 것인지 모호하다라는 느낌. 발전하려고 한 것. 문명은 뭘 이야기하는 것인가? 스펙트럼으로 넓게 이야기, 서구에서 말하는 문명 개념을 우리 식으로 번역해야겠다는 느낌. 우리는 ‘문명화’라는 개념을 숨겨진 권력개념으로 인정해서 받아들이는데 더 복잡한 이데올로기가 있다는 느낌. 당시에의 문명은 어떻게? 개념을 확실하게 나눈 다음에 가야 하지 않나. 상식이 있나? 전체적으로 감탄할 만하진 않음.

전재성: 한국인이 쓴 책이 나올 때가 된 듯. 한국시각에서 보았을 때 전통시대부터 19세기, 일제시대, 분단 정도 까지. 근대적인 한국이 수립 전까지의 국제관계사를 동아시아 architecture. 전근대, 근대이행기, 근대 이후. 여기서의 6-7챕터가 있었으면 좋겠다. David Kang의 책도 임진왜란부터 나옴. 그러나 쓴 것은 거의 descriptive함. 이런 시각을 담은 영어 책이나 논문이라도 필요한 듯. 누군가 써야 하는데. 논문 작업이나 기초작업은 우리 세대. 인호 세대에서 PH. D에서 써야 함. 그러나 미국에서 쓸만한 하지 않음. 쇼고 스즈키도 일본에서 중국공부를 꽤 한 듯. 언어문제가 하나 있음. 우리는 1차 자료부터 봐야 함. 우리가 쓸 때 중국어, 일본어를 아는 사람이 1차 자료를 보면서 쓴 것이 좋음.

내용과 관련된 생각. 첫째, 영국 국제사회학파가 많은 시각을 주긴 함. 19세기의 서양과 동아시아의 만남을 영국 국제사회의 틀을 빌려서쓰는게 정당화되나? 유럽의 국제사회 확장을 동아시아로 쓸 필요성이 있었는데, 우리에게 필요한지? 자신들에게는 normative하지만 유럽국제사회가 다른 국제사회를 만날 때는 hierarchy하고 coercive함. 이 때는 거의 social한 것이 없음. 대부분은 realist적임. Watson도 socialize도 아니고, expansion이나 transplant된다고 씀. 국제사회의 확대 자체는 coercive한 것이 있음. 확산 과정은 anarchical하고 그로티우스도 divisable함. Keene의 글. Empire colonialism임. 그로티우스 생각에는 국제사회의 학파의 시조이긴 하지만 제3세계를 볼 때는 사실상 제국주의적이었다. 국제사회가 아닌 입장에서 국제사회의 틀로 동아시아를 봤을 때 이론적 입장이 있나? 실제 서양의 팽창에서는 identity expansion이나 아님. 아편전쟁 등 굉장히 폭력적으로 옴. 이걸 expansion으로 봐야 하나? 받아들인 상태에서 coercive한다는 것에서 하는 노력임. 그게 과연 적절한가? 제국주의에 나름대로 합의해서 이들 semi-colony에서 있는 것인지, 진짜 socialization이 있나? 확산시켜서 우리를 안아가려고 했는데 진짜 사회화하려고 했나, 아니면 제국주의자들이 socializing했다고 하는데 이는 이론적 발명품이지 fact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나? 우리가 받아들인 땐, 유럽 국제사회의 관념을 받아들여서 그런 것이냐 imperialism이라는 양태만 받아들인 것인지. 일본이 배워온 것이 부국강병과 제국주의 책이었다.

두 번째 질문, 중국은 그럼 그걸 안 배웠냐? 늦어서 그런가? 1880년대부터는 중국도 빠르게 근대적 제국주의를 배움. 신청사부터는 제국주의가 등장했는데 일본은 빨리 배워서 근대 제국주의가 되고, 중국은 얽매여서 그랬나? 근대 제국주의로의 변신도 중국도 나름으로 됨. 일본이 이긴 것은 빨리 배워서 그런가 빨리 강해져서 그럼. 더 작은 사이즈에 중앙집권화된 사무라이 사회에서 미국이 benevolent한 개항을 함. 좋은 입장의 개항을 했고, Empowerment나 물질적 측면에서 빨리 따라잡아서 그런 것이다. 저쪽이 국제사회를 통째로 받아들여서, 제국주의적 behavior이 아니라 국제사회를 받아들였으면 여기서도 사회성이나 legal 다원주의를 받아들였어야 하는데. 여기는 우리 나름의 국제사회를 근대적으로 여기서 만들려는 노력을 했어야 함. 일본이 제일 안 했고 역설적으로 가장 learning을 안 함. 정말 경로의존적인 어프로치를 한다면 국제사회론으로 보았을 때 일본 제국주의를 설명하기 어렵지 않나? 일본이 가장 강해져서 제국주의가 되서? 같은 종속변수라고 국제사회 틀을 안 가져 오는게 더 났지 않나? 국제사회를 꼭 가져와야 되서 현실주의로 바꿔야 하니까 구성주의도 가져오고 함. 내용과 framework사이, 국제사회론 발전의 의미는 있는데. 동아시아에서 꼭 우리가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우리끼리 피전파자들끼리 능동적으로 국제사회를 받아드리려고 했었다는 것인데 이는 삭제됨. 피전파가 누가 더 빨리 모방했는가에 따라서 판세를 설명. 그러면 중국인들이 읽어도. 우리는 전략적 learning도 못하고 retarded된 것으로 보는데. Learning은 빨랐지만 느린 것. 역시 framework의 문제가 있음.

최인호: 이론 틀이 문제면 19세기를 보는 다양한 이론 틀이라고 해야하나? 역사적인 material부분에서?

전재성: 19세기는 거의 전파 때 읽어옴. 그게 IR자가 19세기 쓴 것은 거의 없음. 이도 traditional order와 transition order는 imperialism과 변환. 요즘엔 중국의 부상으로 전근대의 국제정치를 IR theory로 봄. 이는 많지 않음. 이 부분을 다 읽고 19세기는 기존 리딩이 별로 없음. 역사 쪽이 많은데 여기서 들어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함. 또 하나는 non-western IR theorizing임. 전통 IR은 하긴 해야 함.

최인호: 방법론 적인 것. 고민? 리딩을 엮어서 하는 것

전재성: 레비스트로스와는 통하는 이야기. 여기는 여기 hierarchical order가 있었는데 영국학파들은 자신들이 progress하다는 문명적 편견이 있고 여기서 지구사를 보는 편견이 생김. 인류학적 문명 다원주의가 결여됨. 레비스트로스나 구조주의자들은 위계적인 order, status, 동아시아가 덜 progressive할 수도 없다는 것은 볼 수 없음. 문명 다원주의나 thick description이라고 봄. 우리도 진보된 civilizing이라고 봄. uncivilized이다. 우리도 여전히 그런 의식을 갖고 있음. 우리도 진짜 모던한가? 중화질서 대 다원주의적 주권질서가 있을 때, moral, progressive에서 더 진보적인지, 문명. 물질문명의 발달 기준인데 사실 이도 송나라에서 간 것임. 산업혁명의 증기기관의 발명을 빼고는. 인식론적인 배경이 오히려 중요할 수도 있음.

최인호: 미국 IR와 소통하려면 문명 다원론적으로 이렇게 해도 저쪽 패러다임이랑 안 맞을 수도 있음. 저기는 high positivistic함.

전재성: Positivism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음. 실증주의로 설명할 수 있는 인식론과, 이를 풀어가면서 실증주의의 위치를 지어주고, 다른 것들을 다 설명해줄 이론이 필요함. 구조주의도 실증주의만 있음. observable하면서 rational하게 설명하는 게 있고, unobservable하는 인식론이 있고, 관찰불가능하지만 해석적인 인식론도 있고. 다원론적으로 공존하면서 방법함. 어떻게 절충하는지는 절충주의의 문제임. 우리끼리 막연하게 eclecticism을 하면 안되고 실증주의와 탈실증주의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 문제설정을 해야 함. 종합할 수 있는 인식론을 철학에서 발견하자는 것임. 이를 non-western. post-positivism을 봐야 함. positivist들이 읽어도 동의해야 함. 최근 우리가 theorize를 별로 안 했고 방법론만 했다는 미어샤이머, 월트의 반성도 있음. 우리는 우리 나름의 problem-making theory가 필요함. 중국의 부상 등이 필요함. 중국의 부상을 보려면 이들이 가진 규범적 구조를 알아야 하고, 전통사회를 전체, 유교 사회를 알아야 함. 너무 다른 사회다 보니까 해석하지 않고 관찰 분석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 관찰 분석을 넘어선 해석주의를 통해서 전통질서의 culture가 지금 21세기 IR에 어떻게 투사되는지 봐야 한다는 것.

어느 한 쪽이 objective도 아님 morally도 공통된 프루던스도 있어야 함. 서구는 자신들이 만든 주체적으로 형성한 norm의 확신이 있음. 그들이 실증주의적으로 설명하는데 그침. 그들, 100년 간 억압했던 norm이 강요됨. 그들이 힘이 생기면 다시 review를 해서 norm을 극복하겠다는 것. 강대국 외교를 하면서 normative game을 함. 비확산은 미중이 공유하는 틀이니까 rogue state로 보는데. 중국도 자신이 생각하는 norm을 객관주의적으로, 실증주의적으로 설명하게 된다면 지지를 잃게 될 것임. 우리는 문명화되서 북한보다 우리가 옳다라고 보면. 그런 mind-set을 항상 유지하기 어려움. 우리는 항상 잘 되면 독선의 죄에 빠지게 됨.

최인호: 실천론 차원에서 궁금한 것.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음. 지식사회학적으로 권력관계에 따라서 중국이 커지면 거꾸로, 자신이 패권적으로, 프루던스를 잃고 이론화를 시도한다. 그런 가능성이 있나? 적어도 주변국가들 하에서는? 과연 critical problem-solving theory를 하기 위해서. 권력과 지식 간의 한계를 얼마나 뛰어 넘을 수 있나? 무엇을 공부해야 하나? 우리는 중국의 이야기에게 한번도 고민 하지 않다가 중국이 커지니까 하는 것. 국제정치는 결국 중국이 힘이 세지는 게 중요했던 것 아닌가. 상당부분 권력에 끌려감.

전쌤: 아들 부시의 모순체계. 제국주의가 되려는 것과 global society. Global democracy가 동시에 부상했었음. 국경단위를 넘는 global civil society가 국가의 경계를 넘을 수 있다는 것이었음. 여기까진 안 되도 국가는 있지만 각 시민사회가 연결된 글로벌 거버넌스를 상정했었음. 중국이 뜨기 전에도 state-socialization을 다루지만 정보통신 발달이지만. 냉전 이후 socializing이 있음. 중국이 뜨면서 다른 모순이 생김. 기존 패권국과 rising state간의 모순. 중국이 알아서 소프트 파워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를 만들려는 21세기 패권과 이를 거부하려는 글로벌 소사이어티의 규범도 있는 듯. 21세기의 패권국가는 정당성 부분에서 승인을 못 받으면 다른 사회를 패권적으로 다스리는 것, national government의 동의를 못 받을 수 있다고 생각. 그래서 공공외교를 강조. 기존의 국가 간 파워논리를 넘어설 수는 없지만. 하지만 현실외교를 해보면 첨예하게 느낌. 한미외교에서도 미국이 interest 외교나 public외교도 많이 함. 한국이 국제정치를 버리고도 국내 public챙겨야 하므로 한미관계 깨기 어려운데 미국 국무부는 한국 public을 그래도 많이 신경 씀.

최인호: 글로벌 시빌 소사이어티도 결국 euro centric한 논의가 아닌가?

전재성: Human right는 universal하지 않다고 이야기 하기 어려움.

인간의 정신사 발전이 정말 다원주의적인가? 물질적으로 풍요해지고 나면 보편적 덕목이 달성 불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국가는 없음. 정신사의 발전에 linear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닌데 sub-altern한 것. 모더니티 하나가 아니라 모더니티들이 있음. 결국 관념적으로 나뉘어 놨는데. 몸의 문제나 욕구의 문제 등. 인류 전체의 욕구의 단계는 있는 듯.